

# 대형선박 입항 대비 광양항 하역장비 대형화 시급

### 광양시, 컨테이너 크레인 조기 교체 정부 지원 건의

### 향후 2만2000TEU급 수용할 수 있게 시설 확충을

대형 컨테이너선 입항에 대비해 광양항내 하역장비 대형화가 시급하다.

광양시는 전남 동부권 3개 시 지자체장과 기관장들의 모임인 광양만권 발전협의회를 대신해 최근 광양항 컨테이너 크레인 교체에 정부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5일 열린 광양만권 발전

협의회 합의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에 각각 공동명의의 건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의 배경은 광양항에 현재 기항중인 1만TEU급 선박의 경우 갑판위 6단까지만 작업이 가능하고 7~8단 작업이 곤란해 대형선박의 기항기피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해운항만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선박의 대형화로 여기에 적절히 대비하는 항만은 대륙별 거점항으로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항만은 지역 환적항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경쟁구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히 길이 400m, 너비 60m에 달하는 1만8000TEU급 선박의 원활한 기항과 신속한 하역은 향후 선사들의 항만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2만2000TEU급 선박의 등장

도 머지않을 전망여서 현재 주중을 이루고 있는 광양항 22열 컨테이너 크레인으로는 대형선박의 수용이 곤란한 형편이다.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는 "인근 중국과 부산항에서는 선박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24열 이상의 컨테이너 크레인을 도입했으나, 광양항은 부채를 안고 있는 항만공사의 재정형편과 선사들의 수익구조 등을 살펴볼 때 자체 교체사업이 불가한 형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조기에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항만의 수심, 일차형 안벽 구조, 넓은 컨테이너 야드 등을 감안할 때 광양항은 대형선이 입항하는데 세계 어느 항만보다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크레인 교체가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선박의 대형화로 대변되는 항만경쟁 환경의 변화기에 광양만권발전협의회에서 건의한 광양항 컨테이너 크레인 교체 건의가 정부사업으로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광양제철 임직원 불항극복 등반대회

광양제철소 백승관 소장과 직원들은 최근 백운산 수련관~노영리봉 구간 산행을 하며 '저원가·고품질·고효율'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불항극복을 다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 여수 명소 시티투어

### '여자만 해님이' 추가

버스를 타고 여수의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여수 시티투어 프로그램에 여자만 해님이가 추가됐다.

여수시는 3월 1일부터 '여자만 해님이 시티투어'를 도입해 하루 한 차례 운영한다.

해님이 시티투어는 매주 금·토요일 오후 5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관광객들을 싣고 출발해 선소(船所·사적 제392호)와 남해안 일몰 명소인 '여자만 갯벌', 여수의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돌산공원을 돌아 다시 이순신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구성된다. 이용요금은 성인 5000원, 장애인(경로) 4000원, 초·중·고 학생 2500원이다.

여수 시티투어는 ▲항일암 코스 ▲손양원 목사 유적지와 흥국사를 경유하는 역사유적코스 ▲야경 투어코스 등 3개 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문의 (061-659-4736)

/여수=김철수기자 chkim@



보성 한리봉 수확

보성군 조성면 시설하우스에서 한리봉 막바지 수확이 한창이다. 보성지역에서는 20농가 4.5ha에서 연간 33t의 한리봉을 생산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 전북

### 고부가 벤처농업

### 사업체 2곳 육성

### 정읍 농기센터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업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벤처농업 사업체 2개소를 육성한다.

이번 사업대상은 ▲신소득 고품질 체리 생산을 위한 신기술 재배(굿모닝 체리 영농조합법인·대표 조미숙) ▲애완동물용 조사료 국산화 및 표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청아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창순)이다.

센터는 체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품질향상과 함께 생산성을 높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수입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소득작목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전주 한옥마을 2개 노선

### 올해도 주말 차량운행 통제

전주 한옥마을을 가로지르는 태조로와 은행로의 주말 차량 운행이 올해도 통제된다.

전주시는 전통성당~오복대 입구(530m) 태조로와 남천교~은행나무정(553m) 은행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 오는 22일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일요일에 차량운행을 통제한다.

이는 관광객들이 고즈넉한 한옥마을 일대를 안전하게 구경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통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한옥마을 주민은 시에서 주차장을 받아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면 된다. 차 없는 거리에서는 문화장터, 틈새 공연, 기마경탈대 순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chkim@

# 남원 '지리산 산악철도' 1·2구간案 제시

### 철도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 구간별 각각 사업비 1300억·1560억 소요 예상

남원시가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남원시는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 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홍순만)과 MOU(양해각서)를

맺고 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산악철도 신기술 소개와 함께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노선별 소요 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제시했다.

프로젝트는 크게 ▲1구간(운봉 고기 3가~정령치~달궁 3가·12km 구간) ▲2구간(달궁 3가~성삼계~천은사·16km 구간)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확보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사업비는 1구간에 1300억원, 2구간에 15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국·도비 지원과 민간사업자 참여 없이는 사실상 사업추진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도를 관리하는 전남·북과 국립공원 관리기관인 환경부와 협의체 구축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국립공원1호로 지정된 지리산은 야생화·수목·단풍·설경 등 사계절 볼거리가 넘쳐나고, 천연기념물인

반달곰의 서식처인 생태계의 보고(寶庫)이다.

시는 앞으로 환경부, 국립공원 관리공단,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민간사업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지리산 순환도로인 지방도 737호 및 861호인 정령치와 성삼계에 산악철도를 시범 도입하면 '관광 남원'의 위상 제고는 물론 침체돼 있는 전북의 동부권 균형 발전과 지리산권 관광도시로서의 활로 모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산불 인화물질 사전 제거작업

무주 국유림관리소가 산불방지를 위해 18일부터 진안·무주·장수·임실군 등 산불이 우려되는 6ha를 대상으로 인화물질을 제거작업에 나섰다.

<무주 국유림관리소 제공>

## 단신

### 전주보건소-치과의사회 의치사업 협약

전주시 보건소(소장 김경숙)와 전주시 치과의사회(회장 조상기)가 18일 의치(틀니)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시 보건소는 올해 2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치과의사들의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저렴자(만 65세 이상) 121명에게 틀니를 무

료로 시술해 줄 계획이다. 시 보건소는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대상자를 선정, 전주시 치과의사회의 의뢰해 틀니를 무료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경숙 소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chkim@

### 정읍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복면에 건립

정읍시가 지원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이 복면에 들어섰다. (유)정읍수산물산지가공(대표 이기만)은 지난 17일 부지 2134㎡·연면적 660㎡ 규모의 수산물 가공 및 선별시설 2동을 완공했다. 민간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에는 10억원(보조 6억·자부담 4억원)이 투입됐다.

업체는 고등어와 명태, 오징어 등 수산물을 가공해 학교와 병원, 공장 등 집단 급식소에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납품할 예정이다. 또 빠른 시일 내에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해 고품질 가공품으로 납품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고창 고품질 단감 안전생산 기술교육

고창군은 18일 국립 원예특작과학원 배 시험장 조광식 박사를 초빙해 고품질 단감 안전생산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단감 재배 농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교육은 겨울철 가지치기를 비롯해 토양 및 병해관리 등 고품질 단감 생산을 위한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군 관계자는 "영농현장을 직접 방문, 현장 컨설팅을 추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품질 좋은 단감을 생산해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다"며 "단감가공 교육도 마련해 단감 농업의 6차 산업화에 한발 다가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순창경찰, 노인자치 경찰대 발대식

순창군과 순창경찰서는 17일 노인복지관에서 제7기 노인자치 경찰대 발대식을 가졌다.

군은 12월까지 10개월간(8월 제외) 2억7430만원을 투입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자치 경찰대(대장 임웅수)를 운영한다.

65세 이상 노인 130명이 참여하는 노인 자치경찰대는 ▲스콜존 어린이 보호활동 ▲학교주변 교통정리 ▲행락질서 유지와 사고예방 ▲농·축산물 절도 예방 및 금융 도난방지 활동 ▲클린·그린 순창 시책사업 지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